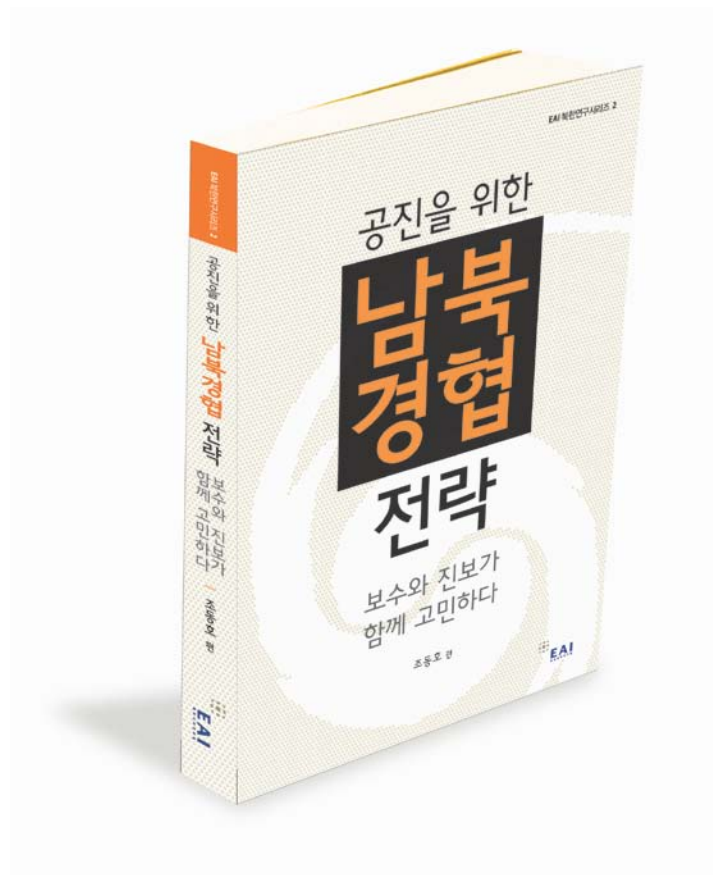


# 남南북北경經협協

보수와 진보가 함께 모색하는 해법



##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From Cooperation to Coevolution: Strateg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편저자\_ 조동호    ■ 발행일\_ 2012년 10월 29일    ■ 페이지\_ 252쪽
- 출판사\_ 동아시아연구원    ■ 가 격\_15,000원
- ISBN\_ 978-89-92395-26-7 93340
- 문 의\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번지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 북한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와 맞물려야 한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만 변화를 요구한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남북한 간만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간에도 마찬가지다. 학자라면 변화하는 북한의 정책과 현실,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북한과 남북경협을 보는 시각을 끊임없이 진화시켜야 한다. ”

서문 중

### 공진

본 연구는 공진(共進, coevolution)의 시각을 기저에 깔고 있다. 본래 생물학 용어인 공진이란 여러 종(種)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나방은 박쥐에게 잡아 먹히지 않으려고 청각세포의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박쥐는 이에 대응해서 초음파를 다양한 형태로 발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천적관계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서도 동일하다. 식물과 동물도 서로의 진화에 따라 함께 진화했고, 광물과 생물도 공진화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와 맞물려야 한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북한에게만 변화를 요구한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남북한 간만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 간에도 마찬가지다. 학자라면 변화하는 북한의 정책과 현실,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해 북한과 남북경협을 보는 시각을 끊임없이 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에 공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공진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토론과 공동집필을 거치면서 공진을 체험하기도 했다. 책 제목에 공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이번 연구의 가장 커다란 의의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모여 남북경협 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이다. 각 소주제 별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 합의할 수 있고, 무엇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는지를 정리한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학자 그룹은 물론 남북경협과 관련한 정책담당자들에게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북한경제·남북경협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성격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가 최초의 시도라는 점도 이번 연구의 중요한 의의일 것이다. 물론 보수와 진보의 시각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들은 보수와 진보의 통합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거나, 다수의 연구자가 참여했다고 해도 분배전략, 정치개혁, 전반적 대북정책과 같은 거대담론에 관한 논의 혹은 보수와 진보의 역사적 철학적 기원 탐구와 같은 성격의 것들이어서 이번 연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즉 기존 연구는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주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생각을 나열한 것임에 반해서 이번 연구는 남북경협이라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견해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양 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전략》의 구성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북경협의 전략과 비전 혹은 역대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평가와 같은 큰 틀에서의 ‘기본 시각’, 상호주의 문제와 같은 ‘원칙과 방향’,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의 평가와 추진방안과 같은 ‘개별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논의되어야 하는 16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 서론

#### 1부 기본시각

##### 1장 남북경제협력의 전략과 비전

##### 2장 북한의 경제전략과 남북경협

##### 3장 남북경협 평가

2부 원칙과 방향

4장 정경분리

5장 상호주의

6장 국제협력

7장 제도개선

3부 개별사업

8장 인도적 지원

9장 개성공단

10장 금강산 관광

11장 10·4선언 합의 이행

12장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13장 인프라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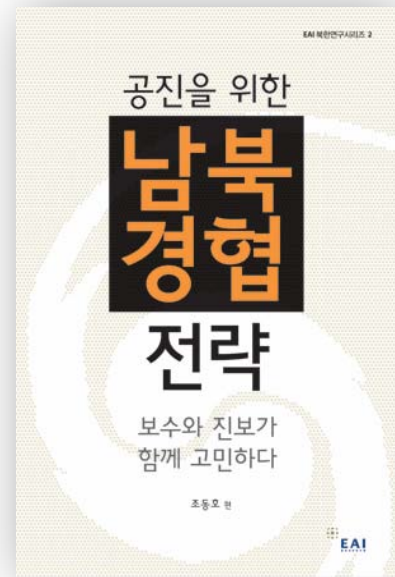
14장 경제특구

15장 개발협력

16장 지하자원 개발

전문가 좌담

부록



집필진 약력 (가나다 순)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아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에서 일했고 2005년 이후 산업연구원에서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Assess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1954-1989: Estimates and Growth Accounting Analysis”(공저)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2008), 《북한 수출산업 육성과 남북경협》(공저, 2009), 《1990-2008년 북한 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공저, 2010),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공저, 2011) 등이 있다.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또한 2004년부터 2006년 1월까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실장,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이며, 코리아연구원 원장, 4·9 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정치경제와 남북관계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2011),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기본합의서”(2011), 《냉전의 추억》(2009),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2001), 《남북경협 가이드 라인》(공저, 2001) 등이 있다.

**박순성**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프랑스 파리10대학(Université de Paris - X)에서 “윤리학과 정치경제학 : 아담 스미스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민족통일연구원(현 통일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다. 참여연대에서 평화군축센터 소장 겸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코리아연구원과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원장으로 일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2003),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2003), 《북한경제개혁연구》(공편, 2002), 《북한의 일상생활 세계 : 외침과 속삭임》(공편, 2010),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2010),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 분단체제론과 분단/탈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이론”(2012) 등이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일본 도쿄대(東京大)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매일경제신문 기자, 문화일보 기자,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KBS 통일방송연구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북한경제의 구조 :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2001), 《북한경제의 시장화 :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2010),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경제연구의 사례”(2009), “북한의 화폐개혁 : 실태와 평가”(2010) 등이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부터 2003년 5월까지 현재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05년 12월까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에서 선임행정관을 역임하였으며, 200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공기업경영실적평가단,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통일부를 비롯해 외교안보 부처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남북경협을 포함한 동북아경제협력, 한중일 FTA, 동아시아경제통합, 경제특구 등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공저, 2011) 등이 있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과 교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1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근무하면서 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회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조선일보 “아침논단” 컬럼리스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12시간의 통일이야기》(공저, 2011),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공저, 2010), “북한경제 중국예측론의 비판적 고찰”(2008),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 가입 조건 및 혜택, 그리고 북한의 선택”(2008), “절망의 10년, 기교의 10년 : 남북경협 20년의 평가”(2008) 등이 있다.

“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

From Cooperation to Coevolution: Strategy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6,48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1,200개의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시아에서 12번째로 우수한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 E A I

**#12 Think Tank in Asia**

**The 2010 Global Go-To Think Tanks Rankings**

영국 BBC방송사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월드 서비스 폴 참여기관입니다

미국 맥아더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시아안보 이니셔티브 핵심기관입니다.

스페인 프리테재단이 선택한 한국 유일의 아고라 아시아-유럽 네트워크 제휴기관입니다.

미국 외교관계평의회가 선택한 한국 유일의 싱크탱크세계평의회 창립기관입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복합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12.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13. 미중관계 2025
14.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上
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 下
16.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17.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 전략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 · 권한 · 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 국민여론 · 소수정부 · 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http://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